

짓밟힌 출범식

서충련 원천봉쇄 강경진압으로 서울대로 변경
성황리 치뤄진 북녘동포돕기 문화제 경인총련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충련) 출범식'과 '경인지역총학생회연합(경인총련) 출범식'은 경찰들의 강경한 진압으로 3백여명의 연행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서울대)와 성균관대학교(성대)에서 각각 개최됐다.

서충련 출범식은 경찰의 원천 봉쇄로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지난 10일 밤 10시 30분경 서울대 도서관 앞에서 거행되었다.

약 7백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서충련 의장단 인사 및 대표발언과 각종 집체극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7백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에 반해 9일 오후 5시경 광운대에서 치뤄진 서울동부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동충련, 의장: 최한욱 광운대 총학생회장) 오월항쟁 선포식 및 출범식은 무사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출범식을 끝낸 학생들이 서충련 출범식을 위해 성대로 이동하는 도중 서계역 주변과 석계역에서 학생들의 이동을 막으려는 경찰과 학생들간의 심한 충돌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동차 유리가 깨어지고 수십명의 학생 및 학생회자가 부상당하고 연행되었다.

이번 출범식은 원래 건국대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서충

련 출범식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원천 봉쇄로 개최가 불가능해지자 장소를 옮겨 개최한 것이었다.

출범식은 오월항쟁 선포에 대한 발언과 동충련 출범 선포 및 의장 용담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경인총련 출범식(의장: 이병연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장)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성대울전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출범식에 앞서 지구별 모임을 통해 지구별 출범식에 대한 대중적 성사와 사수 및 당면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자 했으나 출범식을 불법집회로 간주한 경찰의 강압적인 검문과 검색으로 단위 대학 집결 시간이 늦어져 행사는 9시가 넘어

시작됐다. 이날 행사 중 북녘동포돕기 열린 문화제는 성대 총학생회장 정명훈씨와 경원대 동아리연합회장 신은영씨의 사회로 9시 30분에 시작되었고 류금신, 이정렬씨의 초청공연과 노래마을 축하공연, 수원 민예총의 북춤, 아주대학교 겨레사랑 북녘동포돕기 운동본부 실천단의 노래극이 차례로 진행되며 오후 11시 30분경 막을 내렸다.

본 행사인 '4기 경인총련 출범

식'은 각 지구별 결의대회를 마친 뒤 10일 오전 3시에 성대 부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출범식에서 경인총련 의장 이병연(건국 4)군은 "투쟁으로 만들어진 20만의 단결 애국의 조직 경인총련은 이제 아픔의 시대를 넘어 민중과 함께 김영삼 타도의 한길로 내달아 민중승리의 새 역사를 개척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취재부)



'수요일엔 겨레 사랑을'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지난 7일에도 겨레사랑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경희학원 겨레사랑 운동본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 한끼 굶기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의 아픔이 아니면 진정한 아픔이 될 수 없는 법. 한끼 굶기로 배고픈 동포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최수정 기자)

체대 부산동아시아대회 출전 우성문군 외 4명

지난 10일 부산에서 개최된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학교 체대 학생들 다수가 국가대표로 파견되었다.

중국, 일본, 대만 등 9개국 1천9백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막을 올린 이번 경기에 참가한 우리학교 선수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구=우성문(체육4), 김영선(체육4) △농구=김성철(체육3) △체조=조성민(체육

4), 최영선(체육2)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경기는 부산과 창원 등지에서 개최하게 된다.

범송회 발족

한국장학회 장학생들로 구성된 '범송회'의 첫모임이 지난 7일 오후 서울캠퍼스 학생처에서 있었다.

그간 한국장학회에서 무상장학금 및 무이자대여 장학금을 지급받았던 양캠퍼스 학생 17명으로 구성된 범송회는 이날 모임에서 모임의 취지와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연 예쁜방 뽐기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동연)는 오는 16일 전체 동아리를 대상으로 '예쁜 방 뽐기'를 실시한다.

7개 분과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심사하는 이번 선발의 기준은 동아리방의 '미의 정도', '청결성', '특성화', '문서 및 기계관리상태' 등이다.

총1백점을 만점으로 하는 이번 심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3개의 동아리에는 각각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수여한다.

수강신청 실시

서울 캠퍼스 수강신청이 오는 26일부터 31일 까지 정경대 전산 A실 또는 PC통신상에서 실시된다.

구체적인 수강신청 방법은 17일 배부 예정인 종합시간표를 참조하면 되며 수강지도는 19일 부터 24일 까지 학부 학과 별로 실시한다.

대학주보 뉴스서비스

천야: GO KHU 31
하이텍: GO KHU 10
유니텍: GO KHU
인터넷: <http://news.kyunghee.ac.kr>

서울, 대동제 20일부터

공로명 진로특강

수원캠퍼스 취업정보실은 '제2차 인성교육 및 진로특강'을 오는 13일 오후 3시 20분부터 자연대 시청각실에서 개최한다.

국제화, 개방화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강은 '외교관이 보는 한국통일과 국제관계'를 주제로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이 강의한다.

재학 중 '인성교육 및 진로특강'을 8회 수강할 경우 1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97년 경희 봄 대동제가 오는 20일부터 4일간 서울 캠퍼스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 경희인이 참여 하는 겨레사랑운동이 활발히 펼쳐 지는 가운데 시작되는 이번 대동제의 첫번째 어우러짐은 20일 겨레사랑 통일 한마음 자전거 타기로 시작되며 개막식에서는 춤 한마당 시간도 갖는다.

둘째날인 21일의 최대 행사는 화기동 거리 문화제, 놀이페어, 우금치가 나와 마당극 두리치칠놀이 공연하는 등 회가지

역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 같은 날 저녁에는 영화 시사회도 가질 예정이다.

3대 3 길거리 농구대회가 열리는 셋째날에는 대동제의 가장 화려한 축제인 웅원 큰잔치가 열린다.

마지막 날 '내마음의 휴전선'을 거두고 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북녘동포돕기 문화공연은 회기 주민과 경희인 모두가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교시 탐

선조들의 지혜로 거듭나기

▼사회가 현대화 되어가면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물질만능주의 팽배는 이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의식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원의 법칙을 극복해 오던 선조들의 정신은 아직 우리 가슴에 살아 있다.

▼수원캠퍼스의 고질적 병폐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자 협상이 지난 8일 오후 2시 부총장실에서 있었다. 학생회측은 설문 조사와 현장 자료수집을 통해 교통문제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제시하였고 강남노선 차량 9대 증차, 수원노선 8대 증차, 분당노선 116-1차량 유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교통문제 발생원인을 인정, 요구안의 내용을 일부조정하여 수렴했고 오늘부터 강남노선과 수원노선으로 관광버스 5대와 3대를 각각 배치하여 운행한다. 한편 작년 대비 유가 30%인상, 인건비 증가등의 원인으로 나타난 스쿨버스 요금인상은 학생회측의 10%이내 인상요구에 따라 강남 1천1백원, 수원 4백원.

분당 4백50원으로 책정됐고 오는 19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에 대해 부총장 박규홍(회계)교수는 "기사명찰제 도입과 불원신고합 설치로 기사의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전했고 부총학생회장 김세훈(회계 4)군은 "기사에게 인사하기, 새치기 안하기 등의 캠페인을 통해 교통예절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점점 열악해지는 교통환경으로 학생들의 지각사태 속출, 시험 불참석 등의 문제에 부딪힌 이번 현상은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학교측과 학생회측은 공동된 인지 속에서 한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현명한 태도를 보이며 서로가 수긍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물론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이 보여준 양측의 태도는 협상과정만으로도 큰 성과를 얻은 것이다. 이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남겨진 교육재정확보투쟁이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최진원 기자)

TEN-TEN운동 실시

연간 2억원 예산 절감 가능

전 경희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절약 운동이 실시 된다. 지난 2월 14.15일에 열렸던 실무 부서장 연합회의에서 거론되어 교무위원회에서 시행이 확정된 TEN-TEN운동은 생활 주변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근검 절약을 실천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 하며 나아가 예산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 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인 추진 방침은 비교적 낭비요인이 많고 실천하기 쉬운 10개 항목을 선정하여 10%를 절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해당되는 항목은 전기

요금과 통신비, 상 하수도료 쓰레기 처리비, 복사용지와 프린트 용지등의 소모품비와 차량 유지비, 난방비, 인쇄 출판비, 행사비, 인쇄 관련 식대등의 급량비이다. 성공적인 운동이 펼쳐진다면 연간 2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차기 년도의 예산 책정 기준이 10%이상 줄어 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력을 미칠 수 있고, 목표관리 기능 및 업무 분석 능력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단 이번 운동은 캠퍼스 별로 진행되며 각 캠퍼스 부총장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사무처장이

집행위원장을 총무과장이 간사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전약협 7대 발족식

전국약대협의회(전약협) 7대 발대식이 오는 13일 오후 7시 우리학교 노천극장에서 거행된다.

약대의 6년제 시행, 의료일원화, 전약협 혁신운동, 민중건강권 쟁취, 의약분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발대식은 오늘 보건복지부 앞에서 있게 될 집회를 시작으로 문화공연, 전약협 회장용립의 시간을 갖는다.

POSCO 메시지 면학편

경희대학교 개교 4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동전의 차윌이라는 가난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등불을 켜는데 쓰는 기름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서 여름이면 얇은 비단 주머니 속에 빈딴불을 넣어서 공부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상사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같은 무렵, 손강이라는 가난한 소년은 겨울이 되면 눈빛으로 공부하여 역시 후에 어사대부라는 고급 관리로 출세하였습니다.

오늘도 고학 역행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전기가 없던 시절의 '螢雪의 꿈' 이야기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